

J. W. Peterson



1.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잊을 수 없 - 노 라
 2. 내 앞이 캄캄한 그 때 일을 잊을 수 없 - 노 라
 3.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가도 주님만 계시오면



어둠의 괴롭던 그 날 가고 구세주 뵈옵던 날
 정의와 불의가 교차된 날 한 없이 슬펐노라
 어 떠한 괴로움 두려움도 말 없이 사라지네



오 주여 반기리 친구 되어 이 내 몸 가지소서
 평화가 사라진 무덤위에 찬 바람 불어오고
 주여나 당신께 무릎 꿇고 간절히 바라오니



어두움 버리고 충만한 기쁨을 영원히 고백하리
 어두운 나 그네 갈 길을 잃고서 하느님만 바라보네
 젊음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힘차게 나가리다



영광이 주께 가득하소서
 갈 길은 멀고 땅 거미지네
 힘차게 세상 살아가리다